

詩文에 보이는 永春의 勝景과 風俗

조영임*

-
- I. 머리말
 - II. 永春 勝景의 감상
 - III. 永春의 풍속
 - IV. 맺는말
-

I. 머리말

영춘은 충북 단양군의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영춘은 고구려 을사단현에서 신라 때 지춘현으로 개칭되었고 내성군(영월)의 영현이 되었다. 고려 때에 영춘이라 개칭하고 원주에 속하였다가 다시 정종 원년에 충청도로 이속되었으며, 1895년 갑오개혁 때에 영춘군으로 승격되었던 곳이다.¹⁾

영춘은 북으로 영월군 남면과 하동면, 동남으로 영주시 부석면과 단산면, 남서로 단양군 가곡면, 서쪽으로 단양군 어상천면과 접하고 있다. 지세가 높고 험준하다. 주요 산으로는 영월을 경계로 한 태화산, 영월 영주와 접경하는 아래산, 영주 경계인 형제봉, 가곡 경계인 신성봉, 어

*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1) 단양군, 2005, 『단양군지』, 791쪽.

상천 경계인 삼태산 등이 있다.²⁾ 영춘 지역의 공간을 구성하는 산성, 남굴, 북벽 등의 아름다운 자연 경물과 영춘향교, 사의루, 은달동굴 등의 유적지가 있어서 영춘은 일찍부터 시인묵객들의 탐승 유람과 시문 창작의 소재가 되어 왔다.

지금까지 영춘을 소재로 한 한시는 총 40여 편이 전하고 있고, 대부분 영춘의 풍광을 소재로 하고 있다. 작품을 남긴 작가는 신개(申槩, 1374~1446), 이해(李滄, 1496~1550), 권두인(權斗寅, 1643~1719), 김기(金圻, 1547~1603), 이안눌(李安訥, 1571~1637), 신민일(申敏一, 1576~1650), 이춘원(李春元, 1571~1634), 홍석기(洪錫箕, 1606~1680), 임방(任□, 1640~1724), 권두경(權斗經, 1654~1726), 윤동수(尹東洙, 1674~1739), 강재항(姜再恒, 1689~1756), 남유용(南有容, 1698~1773), 박제가(朴齊家, 1750~1805), 유한준(俞漢雋, 1732~1811), 조재호(趙載浩, 1702~1762), 김정희(金正喜, 1786~1856), 김윤식(金允植, 1835~1922) 등 20여 명이다.

이들은 영춘현감을 지낸 권두인(權斗寅), 남유용(南有容)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여행 중에 영춘을 경유한 시인들이다. 영춘은 단양과의 거리가 58리, 제천과는 55리, 강원도 영월과는 21리에 이르는 곳에³⁾ 있어서, 강원도, 충청도 등을 유람하는 관람객들이 탐승하던 곳이었다.

당시 영춘을 읊은 한시를 소재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소재	永春 全景	南窟	北壁	永春 東軒	松坡 書院	新亭	蘆隱峙	계
편수	14	8	13	4	1	1	2	43

또한 영춘의 남굴과 북벽을 유람하고 난 뒤 작성한 유기(遊記)가 남아 있으니, 서문택의 「四郡遊山記」, 권두인의 「永春北壁記」, 서명응

2) 위의 책, 792쪽.

3) 『湖西勝覽』永春縣 “南至丹陽郡界五十八里, 西至堤川縣界五十五里, 北至江原道寧越郡界二十一里.”

의 「遊永春記」, 송병선의 「東遊記」 등이 그 예이다.

이 글은 오랜 세월을 걸쳐 영춘을 찾은 시인들이 읊은 한시를 대상으로 영춘에 대한 묘사와 표현을 살펴보고, 아울러 그들의 영춘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춘 승경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남굴, 북벽과 송파서원, 영춘 동헌 등을 소재로 한 시문을 검토하고, 이어서 영춘의 풍속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지방의 역사, 자연환경, 지리적 여건, 문화전통 등에 관한 연구를 기초 작업으로 하는 지역학 연구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한다.

II. 永春 勝景의 감상

1. 南窟

단양·청풍·제천·영춘을 사군(四郡)이라 하는데, 사군에는 산수가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다. 단양에 구담봉, 사인암, 삼선봉이 유명하고, 청풍의 병산(屏山), 제천의 의림지가 유명하다면 영춘에는 남굴과 북벽이 유명하다.⁴⁾ 남굴은 영춘의 성산(城山) 남쪽에 있는 석굴이다.

『호서읍지』에는 ‘성산굴(城山窟)’이라 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성산 아래에 석굴이 있어 높이가 11척 남짓이고, 넓이가 10여 척쯤 되며, 깊숙이 들어가 끝이 없고 물이 철철 나와 깊이가 무릎에 닿는데, 맑고 차갑기가 얼음과 같다. 고을 사람이 횃불 10자루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구멍은 오히려 끝나지 않았는데 횃불이 다되어 돌아왔

4) 成海應, 『研經齋全集』 「送金穉奎之官堤川序」 “湖中之四郡, 多佳山水, 如丹陽之龜島, 二潭 舍人 三仙之巖, 清風之屏山, 永春之南窟北壁, 堤川之義林池 其尤佳者也.” ; 李獻慶, 『良翁先生文集』 「行狀」 “遍觀龜潭, 島潭, 舍人巖, 北壁, 南窟, 義林池諸勝, 有詩一軸.”

다.”⁵⁾라고 서술되어 있으며,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과 『임하필기(林下筆記)』에도 위와 같이 서술되어 있다. 『해동지도』에서는 현내면에 ‘남굴(南窟)’이라하고 『지방지도(1872)』와 『대동여지도』에서는 현내면에 ‘석굴’로 표기되어 있다. 남굴은 요즈음에 와서 온달산성과 연계하여 ‘온달동굴’이라 불리고 있다.⁶⁾

다음의 시는 강제항(姜再恒, 1689~1756)⁷⁾이 남굴을 소재로 지은 것이다.

維舟南窟下 배를 남굴 아래에 매어두고
 要見南窟奇 남굴의 기이함을 보려 했네.
 窟中何所有 굴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黑暗不能窺 칠흑같이 어두워 볼 수가 없네. 「永春南窟」

永州南石窟 영주의 남쪽 석굴은
 形勝實難模 생긴 모양을 참으로 본뜨기 어렵네.
 宛轉三重戶 구불구불한 것은 삼중의 창문 같고
 縈紆九曲珠 얽히고설킨 것은 구곡주같네. 「南窟」

5) 민족문화추진회, 1988,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 민족문화문고간행회, 472쪽.

6) 단양군, 2005, 『단양군지』, 502쪽. “온달동굴의 총길이는 700m이며, 연한 회색의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굴의 입구가 남한강변에 있어, 강물 수위가 높아지면 동굴이 물에 잠겨 동굴에 사는 생물은 찾아볼 수 없다. 강물이 동굴 내부를 깎아내려 비교적 단조로운 형태이며 동굴 안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와 동굴의 물웅덩이에서 사는 생물의 다양한 형태를 볼 수 없다. 그러나 땅에서 돌출되어 올라온 석순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다. 온달동굴은 지형경관이 아름답고 지질학적 연구자료로 가치가 크므로 천연기념물 261호로 지정되어 보호하고 있다.”

7) 강제항(姜再恒) :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 진주. 자 구지(久之). 호 입재(立齋). 춘양(春陽) 출생. 윤증(尹拯)의 문인이었다. 회인현감(懷仁縣監)으로 있을 때 벼꾼 선정으로 치적을 남겼다. 경진, 제자백가 등에 통달하였다. 문집으로 『입재유고』가 있다.

위의 첫 번째 시는 남굴의 기이함을 구경하기 위해서 배를 매어두고 굴 안으로 들어갔으나 칠흑같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시는 남굴의 모양이 기이하여 모사하기 어렵지만, 구불구불한 굴 안이 마치 세 겹으로 된 문 같으며, 엷히고설킨 것이 구곡주같다고 하였다. ‘구곡주’란 전설에 의하면, 공자가 일찍이 진(陳)에서 재역을 당했을 때 구멍이 꼬불꼬불하게 뚫린 구슬인 구곡주에 실을 꿰게 되었는데, 방법을 몰라서 망설이던 차에 어떤 여인이 비결을 가르쳐 주므로 공자가 곧 깨닫고는 개미허리에다 실을 묶은 다음 그 구멍에 꿀을 묻혀서 개미를 통과하게 하여 실을 꿰었다고 한다. 구불구불하고 엷히고설킨 굴 안의 모양을 전고(典故)를 이용하여 구곡주라 표현한 것이다.

한편, 남굴은 안쪽이 훤히 뚫려 있고 샘이 흐르고 있어 그 안에 작은 배를 띄우고 풍류를 즐기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⁸⁾

跌宕忘歸意 질탕하게 노닐어 돌아갈 생각도 잊으니
 人疑葉縣鳥 남들은 섭현의 오리인가 의심하네. 「南窟」 其二

위의 시구로 강제항 역시 남굴에서 질탕하게 노닐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구의 ‘엽현부(葉縣鳥)’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하고 있다. 후한(後漢) 명제(明帝) 때 도술을 지닌 왕교(王喬)가 섭현 영(葉縣令)을 지내면서 매일 초하루와 보름이 되면 언제나 조정에 와서 명제를 알현하였다. 그가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자주 오고 또 수레도 타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상하게 여긴 명제가 비밀리에 태사(太史)에게 그 진상을 알아보라고 명했는데, 태사가, 그가 오는 시기에 한 쌍의 들오리가 동남방에서 날아온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들오리가 다시 날아

8) 金允植, 『雲養集』 「濕遊漫吟」 “石竇□窟, 有泉出焉, 每監司巡部, 舁小□放其中, □鼓吹笛.”

오는 때를 기다렸다가 그물로 덮쳤는데, 그물 속에는 몇 해 전에 황제가 상서대(尙書臺) 관원들에게 하사한 가족신 한 짝만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고사로 인하여 후세에 부석(鳧鳥)은 지방관의 이칭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 시구는, 강제황이 남굴에서 풍류를 즐기며 한가롭게 노닌 것을 왕교가 한적한 벼슬살이를 한 것에 빗대어 시화하고 있다. 참고로 강제황은 단양군수나 영춘현감을 역임한 적이 없다.

남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굴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우리나라에는 강릉의 대화굴(大和窟), 울진의 성류굴(聖留窟), 상원의 가수굴(嘉殊窟), 남해의 풍류굴(風流窟), 통천의 금란굴(金欄窟), 영춘의 남굴(南窟)이 모두 유명하다”라고 하였다.⁹⁾ 이렇듯 남굴이 유명하여 이곳을 찾는 수많은 유람객들이 있었으며, 현재 이들이 남긴 유기(遊記)가 전하고 있다. 다음의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① 다만 표주박을 엮어놓은 것 같은 산 하나만 보일 뿐이었다. 그러나 무성한 녹음이 온 몸을 덮어서 처음에는 굴인줄 몰랐으나 그 입구에 이르러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여 바라보니 활처럼 구부러져 있는 굴이었다. 칠혹같이 어둡고 깊숙하였으며, 사방에는 반석이 있고 가파른 바위들이 깃 치장을 한 것 같았다. 물이 그 가운데로 졸졸 흐르는데 사람의 정강이가 잠길 정도였다. 사공이 먼저 이미 배를 저어 햇빛을 밝히고 세 사람이 함께 들고서, 세 사람이 지나가면서 불을 휘두르고 크게 소리치며 노를 저었다. 소리가 굴 안에 울리는데 마치 우레가 치듯 우르릉 광광하였다. 들어갈수록 깊숙하고 한기가 사람을 엄습하여 한여름인데도 마치 가을 같았다. 반도 채 가지 못하고 나는 두려워 사공에게 배를 돌리라고 재촉하고는 두 아들에게 깊숙이 가지 말라고 경계하였다. 다만 내가 유숙하고 있는 이 정봉만이 그 끝까지 갔는데 기암괴석이 많다고 하였다.¹⁰⁾

9)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天地篇 洞府」 「德林石 鏡泊 觀音洞辨證說」 “我東, 江陵大和窟・蔚珍聖留窟・祥原嘉殊窟・南海風流窟・通川金欄窟・永春南窟, 俱有名.”

10) 徐命膺, 『保晚齋集』 「遊永春記」 “但見一山如覆瓢, 然綠燕遍身, 初不知爲窟, 及至其口, 曲腰俛首瞻視之, 則窿然而穴, 黝然而深, 四旁盤石, 嶙峋緣飾,

② 몇 리를 가니 강가에 굴 하나가 보였는데 이른바 남굴인 듯하였다. 길을 버리고 언덕을 따라서 갔으나 막다른 곳에 이르러서도 도착할 수가 없었다. 발걸음을 돌려 몇 걸음을 가지 않아 사람을 만나서야 비로소 굴이 언덕의 오른쪽에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시냇물을 따라 조금 위로 올라가니 굴문이 으리으리하였다. 이에 다시 들어가서 보니 굴꼭이 있고 통해 있었다. 물이 그 가운데로 흘러나오는데 마치 근원을 찾는 듯하였다. 작은 거룻배를 옮기고 햇불을 사라 들어가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일찍이 들으니 굴 안에 물이 매양 정월 초하루 밤이 되면 문득 말랐다가 지나면 다시 흘러나온다고 하니 괴이하다.¹¹⁾

위의 ①은 서명응(徐命膺, 1716~1787)¹²⁾의 「遊永春記」이다. 위의 유기에서 남굴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남굴의 겉 모습은 표주박을 엮어놓은 것 같은 형세이다. 둘째, 내부는 칠흑같이 어둡고 깊숙하다. 셋째, 사방에 반석이 깔려 있다. 넷째, 동굴 내부에는 사람의 정강이가 잠길 정도로 물이 흐른다. 다섯째, 한여름에도 가을 기운이 느껴질 정도로 내부의 온도가 낮다. 여섯째, 남굴 안은 배를 저을 수 있을 정도로 넓다. 일곱째, 남굴의 끝에는 기암괴석이 많다. 남굴에 대한 이상의 대략적인 정보는 뒤에 이어지는 ②의 유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水潺潺其中，可沒人脛。篙工先已撐舟燃炬，每三人共載，過三則揮之，大喝移棹，聲響窟中，轟轟若雷鼓，轉而深，寒氣逼人，方夏若秋。未半，余竦然趣舟子回棹，戒二子毋深。惟余客李廷鳳窮其所至，謂多奇巖怪石。”

11) 宋秉璿, 『淵齋先生文集』, 「東遊記」, “行數里, 見江涯一穴, 疑所謂南窟. 舍路, 從岸而行, 至絕處不得到. 旋趾, 不數步許, 逢人, 始知窟在崖右, 復從澗流稍上, 則窟門呀然. 乃復入視之, 屈曲以通, 水從其中流出, 若欲窮源, 移運小艇, 爇炬以入, 故不得如意. 曾聞窟中水, 每當上元夜, 輒爲乾涸, 過而復出云, 是可怪矣.”

12) 서명응(徐命膺) : 조선 후기의 학자·문신. 자 군수(君受), 호 보만재(保晩齋)·담옹(澹翁), 시호 문정(文靖). 1755년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온 후 1759년 승지가 되고 대사간·대사헌·이조참의를 거쳐 1762년 황해도관찰사로 나갔다. 역학에 정통한 실학의 대가로 북학파의 시조이며 왕명으로 세종·세조 때 쓰던 악보를 수집·집대성하여 『대악전보』, 『대악후보』를 간행했다.

②의 『東遊記』는 송병선(宋秉璿, 1836~1905)¹³⁾이 1868년 33세에 죽속 송익수(宋翊洙), 김용혁(金龍赫), 이치달(李致達), 박승호(朴承浩) 등과 함께 금강산과 영동 지방을 유람하고 지은 것이다. 위의 유기는 영월에서부터 영춘을 거쳐 단양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하였다. ②의 유기에서 남굴이 굴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과 매해 정월 초하루 밤에 동굴의 물이 말랐다가 다시 흐른다는 사실이 전하고 있는 것을 추가로 알 수 있다. 남굴의 대략적인 모습은 『輿地圖書』 영춘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의 남쪽 오 리(里)에 있다. 돌문이 웅장하게 열려 있으며, 물이 깊어 무릎이 잠길 정도이며, 작은 배를 수용할 수 있다. 높이는 3,4丈이며, 너비는 10여 척이다. 그 사이에 백사가 평평히 펼쳐져 있는데 수백 보가 된다.¹⁴⁾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남굴이 ‘석굴(石窟)’로 되어 있다. 또한 굴의 높이와 너비가 비교적 소상하게 기술되어 있다. 다만 수백 보에 이르는 백사장이라는 것은 위의 유기에서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사실이다.

이제 남굴을 소재로 한 다음의 시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상략)

南窟離奇詭 남굴이 비록 기이하나
意氣却峻整 의기는 도리어 높고 가지런하네.

13) 송병선(宋秉璿) : 한말의 문신, 우국지사. 호 연재(淵齋). 자 화옥(華玉). 시호 문충(文忠). 학행으로 천거받아 제주(祭酒)에 기용된 뒤 서연관·경연관·대사헌을 지냈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시정개혁과 일본에 대한 경계를 건의하여 왕의 동의를 얻었다. 뒤에 다시 대궐에서 왕에게 상소하려다가 경무사(警務使) 윤철규(尹喆圭)에게 속아 일본 헌병대에 의해 고향으로 이송당하자 망국의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음독 자결했다.

14) 『輿地圖書』永春 “在縣南五里, 石門砒然而開, 有水深可沒膝, 能容小艇, 高三四丈 廣十餘尺, 間有白沙平鋪過數百步.” 291쪽.

重巖太肅森 겹겹의 바위는 너무나 엄숙하여
 白日不漏影 대낮에도 빛이 들어오지 않네.
 競起怒蛟鬪 다투어 일어남은 성난 교룡이 싸우는 듯하고
 決驟渴馬騁 치달는 것은 목마른 말이 뛰는 것 같네.
 勇士發出圖 용감한 무사는 웅장한 계획을 내고
 懦夫爭縮頸 나약한 졸부는 다투어 고개를 숙이네.
 化翁劇戲弄 조화옹이 지극히 희롱하여 놀리니
 奇變生俄頃 기이한 변화는 잠깐 사이에 생겨나네.
 潭水不知色 웅덩이의 물은 색깔을 알 수 없고
 颯颯衣巾冷 서늘한 바람에 옷과 두건이 차갑네.
 列炬數百步 횃불을 수 백보에 늘어놓고
 搖搖引□□ 흔들흔들 작은 배를 끌고 들어가네.
 笑語出洪鐘 웃고 말하는 것이 마치 쇠북을 울리듯 하니
 鼙鼓□敢逞 도깨비들이 어찌 감히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¹⁵⁾
 (하략)

위의 시는 남유용의 「작은 배를 타고 남굴에 들어가다. 취현의 관음굴 시에 차운하다.(浮小舟入南窟 用翠軒觀音窟韻)」이다. 남유용(1698~1773)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영조 때 승자·예조참판 등을 지냈으며, 문장과 시, 글씨에 능하였던 인물이다. 영조 15년(1739) 2월에 영춘 현감이 되고 그해 가을에 단양을 유람한 바 있는데, 이때 지은 것으로 보인다.

위의 시에는 남굴 내부의 울퉁불퉁한 바위들이 마치 성난 교룡이 다투는 듯하고 목마른 말이 뛰는 것 같다고 묘사하였다. 내부가 어두워서 물빛을 알 수 없으며 서늘한 바람이 불어서 옷이 차갑다고 하였다. 또한 횃불을 밝히고 작은 배를 타고 오고 갔음을 알 수 있다. 동굴 안이라 말하고 웃는 소리가 저절로 울려 마치 쇠북을 치는 것 같다고 하면서 도깨비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배를 타고 남굴로

15) 南有容, 『雷淵集』 「浮小舟入南窟 用翠軒觀音窟韻」.

들어가서 본 내부의 모습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다음의 시는 유한준의 「남굴」이다.

巨靈百怪無不有 조물주의 온갖 기괴함이 두루 미치니
轟麓走巉呀厥口 가파르고 험한 산기슭이 그 입을 벌리고 있네.
邃古沉沉神禹穴 침침한 것은 상고 시대 우임금의 동굴 같고
黑地窳窳后緡寶 어둡고 감감한 것은 후민의 구멍 같네.
是猶鯨魚弄牙角 이것은 마치 고래가 어금니를 희롱하는 것 같아
吞入口纒候不勾 노와 닷줄 삼켜도 목구멍은 차지 않네.
以火燭之否則冥 햇불을 가지고 막힌 곳을 비추어도 어둡거늘
燃松始可分子西 소나무를 태우니 비로소 북쪽과 서쪽이 구분되네.
棹入其腹水□□ 노를 저어 그 안에 들어가니 물이 부딪치며 흐르고
崩巖倒壘上覆覆 었드린 짐승과 거꾸러진 귀신이 위에 숨어있네.
衆夫齊聲撼幽陰 여러 장부들이 일제히 소리치니 그윽한 곳이 흔들리고
驚墮蝠翼顛以仆 놀라 떨어지는 박쥐는 날아서 거꾸로 매달려 있네.
仙髓澗淙滴萬古 신선의 골수는 매끄럽게 만고토록 떨어지고
周鍾□□喧百部 주나라 종과 북이 백방에서 시끄럽게 들리네.
勇者且莫圖孟管 용기있는 사람도 장차 힘써 나아가기를 도모하지 말라
君子居易小人否 군자는 편안하게 거처하고 소인은 그렇지 못하네.¹⁶⁾

유한준(俞漢雋, 1732~1811)¹⁷⁾은 영조 38년(1762)년과 정조 2년(1778) 두 차례에 걸쳐 단양 일대와 경주를 유람하였는데, 위의 시는 1778년에 지은 것이다. 그 외 영춘 관련 한시를 4편 남기고 있다.

위의 시 1~2구에서는 남굴이 모든 기괴함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하고, 가파르고 험한 산기슭에 있는 동굴 외부의 모습을 서술하였다. 3~

16) 俞漢雋, 『自著』 「南窟」.

17) 유한준(俞漢雋) : 자는 만청(曼淸) 또는 여성(汝成), 호는 저암(著庵) 또는 창애(蒼厓). 남유용의 제자로 송시열을 추앙하여 『송자대전』을 늘 곁에 두고 지냈다한다. 조선 후기 당대의 뛰어난 문장가로 이름이 높았으며 저서로 『저암집』이 있다.

14구까지는 남굴 내부의 모습을 비교적 소상하게 묘사하고 있다. 남굴 안이 캄캄한 것은 마치 우임금의 동굴과 후민의 동굴 같다고 하였다.

우임금의 동굴이란, 우(禹) 임금이 한수(漢水)를 소통(疏通)시킬 때에 거쳐하던 굴이라 한다. 『사기(史記)』 「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에 “회계산에 올라 우혈을 찾아보았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또한 후민의 굴은, 하대(夏代)에 예(□ : 유궁국(有窮國) 임금의 이름)가 반란을 일으켜 재상을 시해하자, 재상의 후(后) 민(緡 : 유잉씨(有仍氏)의 딸)이 개구멍으로 도망쳐 나왔다가 유복자 소강(少康)을 낳았는데, 그 후 그 자손이 두(貳)를 써로 삼았다는 역사적 사실과 관련이 된다. 남굴의 내부가 어둡고 캄캄한 것이 마치 민(緡)이 도망치던 개구멍 같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다.

7~8구에서는 햇빛로 어두운 곳을 비추어도 여전히 캄캄하여 솔가지를 태워서야 비로소 방위를 구분할 수 있게 됨을 서술하였다. 9~14구까지는 남굴 안에 배를 띄우고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서 본 모습을 형용한 것이다. 남굴에는 험준한 바위와 종유석 같은 것들이 마치 얽어진 짐승과 거꾸러진 귀신 형상을 하고 숨어 있는 듯하다고 하였다. 시인에게는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된 기암괴석과 종유석, 석순들이 만들어진 일대 장관이 감탄스럽다기보다는 오히려 기괴한 형상으로 비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함께 간 사내들이 일제히 고함을 치니 그 고함소리에 동굴 내부가 진동하고, 숨어 있던 박쥐가 놀라 떨어지고 넘어졌던 모양이다. 동굴 내부에 박쥐와 같은 동물이 서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동굴의 천장에 고드름처럼 매달린 원추형의 종유석에서 물이 방울방울 떨어지는데 마치 ‘신선의 골수’같다고 하였으며, 동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닥에 쌓여 원주형으로 위로 자란 석순을 보고 마치 수백 개의 종과 같다고 보았다.

마지막 15~16구는 남굴을 둘러본 소회를 정리한 것이다. 시인은 『중용장구』에 “군자는 평이한 도리를 행하면서 천명을 기다리고, 소

인은 위험한 짓을 행하면서 요행을 바란다. [君子居易以俟命 小人行險以徼幸]”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아무리 용기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남굴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소인의 위험한 행동이라고 경계하고 있다. 동굴에 대한 선인들의 의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2. 北壁

북벽은 영춘면 상리의 남한강가에 병풍처럼 늘어서 있는 석벽(石壁)을 말한다. 조선 영조 때(1724~1726) 영춘현감을 지낸 이보상(李普祥)이 석벽에 '북벽(北壁)'이라고 암각한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명칭의 유래는 오류인 듯하다. 1705년에 지은 서문택의 「四郡遊山記」에 북벽이란 이름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¹⁸⁾

북벽은 그 높이가 수십 길이고, 길이는 약 500보에 이른다. 북벽의 가장 높은 봉을 청명봉(靑冥峰)이라하고 바위 하나가 마치 매가 날아가는 형상을 하고 있어 응암(鷹岩)이라고도 한다.¹⁹⁾ 금수산·칠성암·일광굴·죽령폭포·온달산성·구봉팔문·다리안산과 더불어 단양 제2팔경의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영춘읍지』와 『대동여지』에도 북벽의 기록이 보인다.

북벽은 영춘의 남굴과 더불어 대표적인 볼거리 중의 하나였기에 예로부터 시인묵객이 이곳에서 뱃놀이를 하며 풍경을 즐기곤 하였다. 영춘의 북벽을 유람하고 나서 쓴 유기는 서문택(徐文澤, 1657~1706)의 「四郡遊山記」가 최초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1705년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삼일에 걸쳐 영춘, 단양, 제천, 청풍 등 4군을 유람하고 쓴 것이다. 「四郡遊山記」에는 북벽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18) 박중익, 2010, 「기행문학 <金剛山·四郡遊山記>의 내용분석」, 『어문연구』 64, 130쪽.

19) 이창식, 2002, 『단양팔경 가는 길』, 푸른사상사, 206쪽.

25일이다. 일찍 일어나서 삼 사군과 동행하여 소위 북벽이란 곳에 이르니, 배가 이미 도착하였다. 배를 타고 술자리를 베푸는데, 고을 원은 아버지의 기일이어서 술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흐름을 따라 오르내리니 창암절벽의 형세가 심히 준엄하였다. 맑은 물과 깨끗한 못이 지극히 잔잔하였다.²⁰⁾

위의 인용문을 통해 저자는 배를 타고서, 배 안에 술과 같은 먹거리를 갖추고서 유람을 즐겼음을 알 수 있다. 창암절벽과 맑고 깨끗한 물로 북벽을 간략하게 묘사하였다.

그 후 영춘현감을 지낸 바 있는 권두인(權斗寅, 1643~1719)²¹⁾이 남긴 「永春北壁記」는 북벽의 모습을 비교적 소상하게 알 수 있게 한다.

읍이 관령의 경계에 있으면서 산수군(山水郡)이라 칭하는 것이 넷이 있다. 영춘은 사군 가운데 하나로 가장 상류에 있고 공벽하며 수많은 산 가운데 끼여있다. 그윽하고 깊숙하여 실로 호외(湖外)에서 가장 공벽한 곳이다. 현을 경유하여 북쪽으로 2,3리쯤 가면 절벽이 있다. 강 건너 험준하게 우뚝 솟아 있어 명승지로 가장 잘 알려졌는데, 이것이 북벽이다. 유람객이 배를 타고 위로 올라가 늘어탄(訥魚灘)을 돌아서 북진(北津)에 이르면, 강 언덕에는 낮고 평평한 짧은 기슭이 있고, 그 위에는 오래된 온진정(蘊眞亭)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대개 북벽의 경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배를 끌고 점점 위로 올

20) 徐文澤, 『金剛山·四郡遊山記』 “二十五日. 早起, 與三使君同行, 至所謂北壁, 則舡已到矣. 上舡, 設小酌, 主倅以老峯忌故未參酒席, 溯流上下, 則蒼岩鐵壁, 勢甚巉巖, 澄波明潭, 亦極潺湲.”(박종익, 2001, 『금강산·사군유산기』, 민속원, 재인용)

21) 권두인(權斗寅) :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 안동. 자 춘경(春卿). 호 하당(荷塘)·설창(雪窓). 35세에 비로소 진사시에 합격했으나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학문에 전심했으며, 학행으로 효릉참봉(孝陵參奉)이 되었다. 관직도 마다하고 조부상을 돌봤다는 이유로 영춘현감에 천거되었다. 그 뒤 장원서별제(掌苑署別提)·사어(司禦)를 거쳐 공조좌랑이 되고 사직하였다. 안동의 동백서원에 배향되었다.

라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샘이 북벽 밑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데 철철 철 흐르는 물소리가 마치 폐옥을 울리는 것 같았다. 이 돌부터 더욱 기이하고 물은 더욱 깊게 고여 있다. 가파른 푸른 절벽이 그림자를 거꾸로 한 듯 옥거울 속에 꽃혀 있다. 조금 위로 올라가면 커다란 돌이 푸른 절벽 끊어진 곳에 우뚝 솟아 있고, 그 위에 마치 날개를 고르고 하늘을 향해 앉아 있는 듯하여서 '골암'이라고 부른다. 그 바위의 높이가 천여 척이나 되며, 아래에도 역시 수십 척이 된다. 그 움푹한 골짜기는 벼랑이 되고, 속 들어간 곳은 굴이 된다. 성난 사람이 서 있는 듯하고, 무릎 꿇은 호랑이가 엎드린 것 같아 거의 형용할 수가 없었다. 푸른 이끼와 넝쿨이 꼭 감싸고 있고, 그 사이에 잡초목이 있다. 곁에는 시끄러운 수레 소리가 나고 골곡은 길지 않았다.

또 조금 위로 올라가니 가장 높은 절벽이 있는데 높고 험악한 형세가 마치 구름을 헤쳐 가는 듯하였다. 비록 백혼(伯昏)같은 가파른 바위를 밟아도 또한 올라갈 수가 없어서 처음으로 그것을 이름하여 '금운벽'이라 하였다. 물이 이곳에 이르러 휘몰아치고 세차게 흘러 내려간다. 또 중간에서 위로 수십 보를 올라갔으나 불거리는 이에 이르러 다한 셈이다.

내가 이곳의 현감이 된 뒤로부터 벼슬살이가 한가하여 일삼을 것이 없어 흥이 이르면 문득 쪽배를 부르고 거문고와 술을 싣고 물결을 거슬러 홀로 가곤 했다. 노를 저어 오르내리며 가고 싶은 데로 내버려두어도 하루 종일 피곤한 줄을 몰랐다. 손님이 와도 또한 그와 같이 하였다. 혹은 며칠을 연달아 하기도 하고 혹은 간간이 며칠을 하기도 하였으나 대개 보통 늘 있는 일이었다. 매양 석양이 북벽에 들면 붉고 푸른 빛이 겹겹이 겹치고 잠시 뒤에 달이 나오면 영롱함이 은은히 비추다가 문득 변하여 옥호(玉壺)의 세계가 된다.

금빛 물결이 넘실대어 하늘과 한 빛이 되면 술병을 기울여 가득 따르고 뱃전을 두드려 호탕하게 노래를 부른다. 통소와 피리를 차례로 불고, 뱃노래를 서로 부르면 그 소리가 벼랑과 골짜기를 진동한다. 산

이 올리고 물결이 솟구치는데 황홀하기가 마치 뱀목을 타고 은하를 건너는 것 같고, 표표(飄飄)한 것이 마치 유람을 뛰어넘어 봉초(奉初)를 이웃하는 것 같다. 일찍이 동어(銅魚)²²⁾가 내 몸에 있음과 세속이 내 참 마음을 가로막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그런 연후에 이곳이 절경임을 깨닫고 하늘이 나를 대접함이 후덕함을 알았도다.

아! 사람이 산수로 말미암아 그 소회를 풀고, 산수는 사람을 얻어서 그 이름을 드러내는도다. 옛적 유주(柳州)와 영주(永州) 두 고을은 황량한 변방 오랑캐 땅에 있었으나 청탁이 처음 생긴 뒤로부터 몇 천 년이 지날 때까지 사람들은 그곳을 아는 자가 없었다가, 한번 유자후가 그 승경을 기록하고 나서 비로소 산수가 천하에 알려졌다. 그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는 마치 은총을 입은 듯이 지금까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나는 영주와 유주를 보지 못했으나 그곳이 이곳과 비교하여 어떠한지 알지 못하겠다. 돌아보건대, 유 유주²³⁾의 필력으로 그것을 묘사하였다면 산수로 하여금 침울하게 하고 땅 귀신이 알게 할 터이니, 어찌 또한 그를 만나지 못함을 한하지 않으랴!²⁴⁾

22) 도어(銅魚) : 옛날에 지방관이 소지하던, 구리로 만든 어형(魚形)의 부신(符信)을 말한다.

23) 당(唐) 나라의 문호 유종원(柳宗元)을 말한다. 당송 8대가의 한 사람으로, 자는 자후(子厚)이다. 왕유, 맹호연, 위응물과 함께 왕·맹·위·유라고 칭해졌다.

24) 權斗寅, 『荷塘先生文集』, 「永春北壁記」 "居于關嶺之界, 而稱山水郡者四, 永春爲四郡之一, 而最在上游, 僻介萬山中, 窈窕幽邃, 實湖外極窮處也. 由縣而北可二三里許, 有絕壁, 跨江陡起, □□□轟, 最以名勝聞, 是爲北壁. 游者舟行而上, 循訥魚灘, 至北津, 江岸有短麓低平, 其上舊有蘊眞亭, 今廢. 蓋壁之勝始此, 挈舟漸上, 漸入佳境, 有泉自壁底瀉出, 琮琤如鳴佩玉, 自此石益奇, 水益湮□, 青壁巉削倒影, 挿玉鏡中. 稍上, 有鉅石, 斗絕卓立, 其上若有鳥厲翼, □霄而坐者, 號鵲巖. 其壁之高者千餘尺, 下亦不減數十丈, 其缺者□□爲厓, 陷者嵌空爲窟, 怒則人立, 蹲則虎伏, 殆不可具狀. 蒼蘚翠蔓, 封絡蒙綴, 間有雜草木, 側出□□, 屈曲不長. 又稍上, 得最高壁, 嶮截峻拔, 勢若拂雲, 雖履危石如伯昏, 亦不可躋攀, 創名之曰錦雲壁. 水至此盪擊洄瀾而下, 又折而上數十步, 觀至此窮矣. 得最高壁, 嶮截峻拔, 勢若拂雲, 雖履危石如伯昏, 亦不可躋攀, 創名之曰錦雲壁. 水至此盪擊洄瀾而下, 又折而上數十步, 觀至此窮矣. 自余守茲土, 官閑無所事, 興至, 輒呼短艇, 載琴酒, 溯流獨往, 蕩□沿

위의 유기는 내용상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단락에서는 북벽의 위치와 북벽의 경관을 묘사하였다. 영춘은 사군 가운데 가장 궁벽한 곳이며, 영춘의 명승지가 바로 북벽이라 하였다. 북벽의 자연경관에 대한 묘사는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위의 유기를 통해 영월군(寧越郡) 금장강(錦障江)의 하류인 늘어탄(訥魚灘)을 돌아서 북진에 이르면 강 언덕 위에 온진정(蘊眞亭)이 있었으나 당시에 이미 사라지고 없음을 알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온진정(蘊眞亭)이 객관 북쪽에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가파른 절벽 위에 마치 새가 하늘을 향해 앉아 있는 듯한 바위의 형상을 두고 '鶻巖'이라고 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골암'은 '鷹巖'이라고도 한다. 또한 저자 스스로가 가장 높은 절벽을 '금운벽'이라 명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단락에서는 적벽 유람의 풍류와 흥취를 매우 유려하게 묘사하였다. 저자는 영춘현감이 된 뒤 한가한 벼슬살이로 인해 흥이 일면 쪽배에 거문고와 술을 싣고 적벽 아래에서 하루종일 뱃놀이를 즐겼다고 한다. 석양에 뱃전을 두드리고 호탕하게 노래하는 장면이나 그 속에서 느끼는 풍류와 흥취는 마치 소동파의 적벽부를 연상하게 한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자신의 필력이 유증원에 미치지 못함을 한탄하고 있다. 일찍이 유증원은 유우석 등의 정치개혁운동에 가담하였다가 성공하지 못하여 영주사마(永州司馬)와 유주자사(柳州刺史)로 좌천된 바 있는데 그곳에서 산수·자연의 시를 지어 자신을 위로하였다. 영주는 지

洞，任其所之，窮日不知倦。客至亦如之，或連日或間數日，率以爲常，每返照入壁，紫翠重疊，少選月出，玲瓏掩映，忽變而爲玉壺界，金波浴漾，與天一色，傾壺滿酌，扣舷浩唱，簫管迭奏，棹歌相發，響震崖谷，山鳴水湧，恍恍然若乘槎泛銀河，飄飄乎若超汗漫而隣奉初，曾不知銅魚之在身，世累之汨吾眞，然後覺此地之爲絕境，而知天餉我厚矣。噫！人由山水而暢其懷，山水待人而著其名，昔柳永二州，在荒徼夷獠之鄉，自清濁始判，歷幾千年，人莫之知也。一經柳子厚記其勝，始以山水名天下，其一草一木，猶衣被寵光，至今響人牙頰，吾不見永柳，未知其較此地何若也。顧之柳柳州筆力摸寫之，使山水沈鬱，坤靈有知，豈不亦恨其不遭也哉？”

금의 후난성[湖南省] 남부에 있고 유주는 광시좡족[廣西壯族] 자치구 중부에 위치한 곳이니 중국의 변방에 해당되는 매우 궁벽한 마을이다. 그러나 유종원이 영주와 유주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시와 문에 씌으로써 궁벽한 이 두 고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유종원이 “아름다움은 절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美不自美, 因人而彰)”라고 하였으니, 이 말은 산수는 산수 자체로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를 간직하고 있지만 산수와 관련된 특별한 인물을 만남으로써 더욱 성가(聲價)를 드러낼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저자는 영춘의 아름다운 북벽이 유종원을 만났다면 중국의 영주, 유주와 같이 널리 알려졌을 터인데 필력이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만나 그러지 못함을 한탄하고 있다. 영춘의 북벽에 대한 유기로 이처럼 완성도 높은 작품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시는 임방(任□, 1640~1724)²⁵⁾이 영춘현감인 권두인과 함께 북벽에서 배를 타고 노닐 것을 소재로 하여 쓴 것이다.

翠壁千尋插綠漪 천길 푸른 암벽이 푸른 물결에 꽃혔는데
江光石色盪參差 강물빛과 돌빛이 들쭉날쭉 어울려있네
屏風九疊張雲錦 병풍 아홉 겹은 비단 구름 펼쳐 놓은 듯하니
未必廬山勝此奇 반드시 여산은 이 절경보다 더 낫지는 않으리. ²⁶⁾

위의 시에서 시인은 천길 푸른 암벽과 병풍처럼 둘러쳐진 북벽의 모습은 중국의 여산만 못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다음의 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25) 임방(任□) : 조선 후기 문신. 본관 풍천(豊川). 자 대중(大仲). 호 수촌(水村)·우졸옹(愚拙翁). 시호 문희(文僖). 1689년 호조정랑 때 기사환국으로 송시열이 유배되고 인현왕후가 폐위되자 사직했다. 인현왕후 복위와 함께 의금부 도사로 복직, 사옹원첨정 등을 지내고 1702년 알성문과에 급제, 장령이 되었다. 이어 대사성 등을 거쳐 공조판서가 되었다.

26) 任□, 『水村集』 「與永春宰權君同舟觀北壁」.

江源出五臺 강물의 근원이 오대산에서 나와
雷轉萬山來 우레처럼 많은 산을 굽이쳐 왔네.
流到北壁下 흐르다가 북벽 아래에 도착하면
涵爲玉鏡開 모여서 옥빛 거울로 열리네.²⁷⁾

江邊千萬山 강가의 수많은 산 가운데
北壁最奇絶 북벽이 가장 빼어나네.
游人倚酒船 유람하는 사람은 술에 의지해 배타고
手弄淸湖月 손으로 맑은 호수에 비친 달을 희롱하네.²⁸⁾

위의 두 편의 시는 권두경(權斗經, 1654~1726)²⁹⁾의 작품이다. 첫 번째 시의 기구로 보아, 오대산에서 발원한 남한강이 영월에서 동강과 서강으로 합쳐져 북벽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북벽 아래 물이 마치 옥거울을 펼쳐 놓은 것처럼 맑다고 하였다. 두 번째 시에서, 유람객들이 배에 술을 싣고 맑은 호수에 비친 달을 희롱하며 풍류를 마음껏 즐겼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의 시는 이덕수(李德壽, 1673~1744)³⁰⁾의 「북벽」이다.

一峯一石世愛賞 봉우리 하나 돌 하나도 세상에서 사랑하고 감상하니
孰知大小殊氣象 누가 크고 작은 기상이 빼어난 줄을 알았겠는가?
請看北壁大如許 청컨대 저렇게 장대한 북벽을 보라
闊展石屏三千丈 활달하게 펼쳐진 돌병풍이 삼천길이네.

27) 權斗經, 『蒼雪齋先生文集』 「北壁」 其一.

28) 權斗經, 『蒼雪齋先生文集』 「北壁」 其四.

29) 권두경(權斗經) : 조선 후기의 학자로 이현일의 문인. 자 천장(天章). 호 창설재(蒼雪齋). 영산현감, 홍문관수찬을 지냈다.

30) 이덕수(李德壽) : 조선 후기의 문신. 자 인로(仁老). 호 서당(西堂)·벽계(藥溪). 시호 문정(文貞). 문장과 글씨에 능하여 『경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서당집』과 『과조록』 등을 남겼다. 간성군수(杆城郡守), 동지부사(冬至副使) 등을 지냈다.

苔紋斑駁石紋古 이끼 무늬는 아롱져 돌무늬는 예스럽고
 繡錯霞蒸互低仰 알록달록한 노을이 위 아래로 흩어져있네.
 王愷石崇鬪豪侈 왕개와 석숭이 호화사치를 다투었듯
 步障十里爛紅紫 십리 펼쳐진 병풍에는 빛이 찬란하네.
 珊瑚擊碎不自惜 산호를 부수고도 스스로 아까워하지 않았고
 磊砢火齊兼翡翠 너라와 화제 및 비취를 가지고 있었네.
 世尊高踞七寶座 세존은 칠보로 장식한 자리에 높이 앉아 있고
 奔走人天禮足下 분주한 중생은 예를 표하며 내려오네.
 天女手散五色華 선녀는 손으로 오색의 꽃을 뿌리고
 瓔珞袈裟口口髻 영락의 가사는 매우 아름답네.
 項王鴻門怒勃鬱 항왕이 홍문연에서 분노를 하니
 刀鎗旄纛敵成列 칼과 창이 세운 깃대가 엄숙하게 열을 지었네.
 莊也起舞殺氣飛 썩씩하게 일어나 춤을 추니 살기가 드날렸고
 左盤右蹙劍如雪 왼쪽으로 구부리고 오른쪽으로 움츠리니 칼날은 눈과 같네.
 北壁之壯有如此 북벽의 장관은 이와 같으니
 嗟吾有口不能說 아, 나는 입이 있어도 표현할 수 없네.
 楓岳雪岳無此奇 풍악산과 설악산에도 이 같은 기이함 없고
 龜潭島潭兩孩兒 구담과 도담은 두 어린 아이와 같네.
 寄語四郡遊山客 사군에서 산을 유람하는 나그네에게 말하노니
 不見北壁謂之不見四郡也亦宜 북벽을 보지 않으면 사군을 보지 않았다고 함
 이 마땅하다.³¹⁾

이덕수의 문집에는 단양 관련 한시가 「북벽」를 포함하여 7편 수록되어 있는데, 모두 저자의 나이 62세인 1734년 무렵에 지은 것이다. 위의 시는 의미상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도입에 해당하는 1~6구에 서는, 세상 사람이 봉우리 하나, 돌 하나도 사랑하고 감상하지만 크고 작은 것에도 빼어난 기상이 있음을 누가 알 것이냐고 자문하면서 장대한 북벽이 삼천 길이나 펼쳐진 것을 보면 그 기상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북벽의 장엄함을 서두에서 포진하고 있다.

31) 李德壽, 『西堂私載』 「北壁」.

전개에 해당하는 7~18구까지는 북벽의 모습을 다양하게 형용하고 있다. 먼저, 진나라 때의 부호인 왕개와 석숭이 호화를 다투어 자랑하는 전거를 썼다. 옛날 중국의 진(晉)나라 왕개(王愷)와 석숭(石崇)의 가문이 호사를 서로 다투었는데, 왕개가 무제(武帝)로부터 하사받은 2척(尺)짜리 산호(珊瑚) 한 개를 석숭에게 자랑하자, 석숭이 철여의(鐵如意)로 때려 부수고는 그 대신 3척짜리 산호 여섯 개를 집에서 가져와 보여 주니 왕개가 망연자실했다는 고사가 『진서(晉書)』 「석숭열전(石崇列傳)」에 나온다. 다시 말해, 북벽이야말로 부호가 소유한 산호, 뇌라, 화제, 비취 등 보화들이 가득한 것과 같이 아름다운 곳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에는 북벽 한 가운데 높이 솟은 봉우리를 세존으로, 그 좌우에 있는 봉우리는 세존을 향해 예를 다하는 중생의 모습으로 형용하고 있다. 장중하고 위엄있는 북벽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유방과 항우가 홍문에서 회합하여 가진 연회를 전거로 북벽의 경치를 묘사하였다. 유방(劉邦)이 먼저 진(秦)나라 수도 함양(咸陽)을 함락하고 군사를 보내 함곡관(函谷關)을 지키고 있었는데, 항우(項羽)가 뒤미처 와서 홍문(鴻門)에 진주하고 유방을 치려하였다. 이에 겁이 난 유방이 홍문으로 찾아가 항우에게 사죄하였는데, 이 때 연회가 벌어진 자리에서 항우는 유방을 죽이려는 계략을 꾸몄다. 장량(張良)이 이 위급한 상황을 번쾌에게 알리자 번쾌가 군문(軍門) 병사의 저지를 뚫고 들어가 유방을 구출하였던 일이 있다. 이때의 위험천만한 상황처럼 북벽의 위태로운 모습을 장엄하면서 웅장하게 형용하고 있다.

결론에 해당하는 19~24구까지는 북벽의 장관에 감탄하고 있다. 북벽의 장관은 입으로 형용할 수가 없으며, 풍악산과 설악산에도 북벽 같은 기이함이 없을 것이고 단양팔경의 하나인 구담과 도담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어, 북벽을 보지 않았다면 사군을 보지 않은 것이라고 결론 맺고 있다. 다양한 전고를 끌어와 북벽의 모습을 화려하고 장엄하게 묘사하였다.

北江之壁鬱岍峨 북쪽강의 절벽은 뻣뻣하게 우뚝 솟았고
 一半絳雲蒙翠蘿 강운봉의 절반은 푸른 담쟁이덩굴에 덮혔네.
 嗷嗷如聞木客語 울음소리는 목객의 말이 들리는 듯하고
 飄飄若有浪仙過 나부김은 낭선이 지나는 듯하네.
 □□鋪璋絕銀漢 펄럭이는 비단 장막은 은하수 끊어놓은 듯하고
 摺疊湘裙拖鏡波 겹이진 상군 치마는 맑은 물결에 퍼놓은 듯.
 孤鶴扁舟兩無處 외로운 학과 조각배는 둘 다 머문 흔적 없으니
 幾時驚悟笑東坡 얼마 후에 놀라 깨닫고 소동파처럼 웃음짓네.³²⁾

위의 시는 심상규(沈象奎, 1766~1838)³³⁾의 작품이다. 북벽의 모습을 여러 고사를 인용하여 묘사하고 있다. 3,4구의 목객이란 산에 사는 괴물로 요정을 말한다. 사람과 같은 모습에 새의 발톱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나뭇가지 위에서 산다고 한다. 또한 낭선은 한때 중이 되었다가 환속한 당나라 때의 시인인 가도(賈島)의 자(字)이다. 북벽 주위에서 나는 울음소리는 요정이 내는 소리요, 펄럭거리며 나부끼는 것은 마치 시인 가도의 흔적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6구의 '상군 치마'는 순임금의 두 비인 아황과 여영이 순임금의 봉어 소식을 듣고 소상가에서 슬피 울었는데, 그때 떨어진 눈물이 대나무에 배어 얼룩이 저서 '반죽(班竹)'이 되었다는 전설을 인용한 것이다. 즉, 반죽처럼 얼룩진 북벽의 수풀이 맑은 강에 펼쳐져 있다는 의미이다. 마지막 시구에서 이렇듯 아름다운 북벽에서 풍류를 즐기지만 학과 조각배 어느 것도 자취가 없는 것을 보고 시인은 적벽부를 지은 소동파를 떠올리며 미소를 짓고 있다. 자연이 영원한 것에 반해 인간은 유한하다는 인생무상을 느꼈을

32) 沈象奎, 『斗室存稿』 「北壁」.

33) 심상규(沈象奎) :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송(靑松), 초명은 상여(象輿), 자는 가권(可權)·치교(釋敎), 호는 두실(斗室)·이하(彝下)이다. 우의정·좌의정·영의정을 두루 역임하였던 인물로서 노론 시파의 거두였다. 학문적으로는 북학파로서 이용후생을 강조하였다.

것이며, 취해도 금하는 이가 없고, 써도 다함이 없는 조물주의 다함없는 보물이 자연임을 깨달았을 것이다.

적벽에는 영춘현감을 지낸 이보상이 석벽에 ‘적벽’이란 글자를 암각하여 놓았다. 그러나 적벽에는 이보상이 쓴 글자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곳을 찾는 많은 유람객들이 자신의 자취를 남기기 위해 글자를 새겼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벽이 가파르고 험했다. 병풍 같기도 하고, 휘장 같기도 하고, 성첩 같기도 하였다. 유람객들의 이름을 쓴 것이 많았는데 혹 예서로 쓰기도 하고 혹 전서로 쓰기도 하였다.³⁴⁾

위의 글은 보만재 서명응(1716~1787)의 「遊永春記」이다. 석벽의 모양을 병풍 같다고 하고, 휘장 같다고 하고, 성첩 같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벽면에 북벽을 유람한 사람들의 이름이 예서 혹은 전서로 쓰여져 있다고 하였으니, 자신의 자취를 세상에 전하고자 함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듯싶다.

3. 기타 - 松坡書院과 永春東軒 및 蘆隱峙

영춘을 노래한 한시에는 남굴과 북벽 외에도 송파서원, 영춘동헌, 노은치 등을 소재로 한 것이 있다. 먼저 송파서원을 소재로 쓴 다음의 시를 살펴보자.

拜廟伸追慕 사당에 배알하고 사모하는 마음 펼치고

34) 徐命應, 『保晚齋集』 「遊永春記」 “壁□嶒峭厲, 如屏如帳如雉堞, 多遊人題名, 或隸或篆. 下□江水, 影皆倒寫, 若先天圖之復卦, 上積累下停畜, 以拱軸於北也, 迤邐繞出邑治之右. 平流急灘, 遞相送迎, 旱餘水淺, 舟摩軋石齒, □□有聲者凡五里.”

乘舟下石灘 배를 타고 석탄으로 내려오네.
一移一回首 한 번 옮길 때마다 한 번 고개 돌리니
已過萬重山 이미 여러 겹의 산을 지나왔네.³⁵⁾

위의 시는 윤동수(尹東洙, 1674~1739)³⁶⁾의 「영춘에 가서, 송과서원에 배알하고 현판 위의 시에 차운하다(往永春 謁松坡書院 次板上韻)」이다. 윤동수는 일찍이 단양군수를 역임한 바 있다. 송과서원은 1673년(현종 14) 지방 유림이 뜻을 모아 윤선거(尹宣擧)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서원으로 영춘면 하리에 있다. 송과서원은 선현을 배향하고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해오다가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1871년(고종 8)에 철폐된 뒤 복원되지 못하였다. 위의 시에서는 송과서원에 배알했다는 내용 외에는 별다른 송과서원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다음의 시는 영춘 동헌을 소재로 쓴 것이다.

絕峽山蟠地 절벽으로 된 골짜기 산은 땅에 서리고
危灘浪拍空 위태한 여울의 물결은 허공을 치네.
谷分三梁北 계곡은 북으로 삼타산으로 나뉘고
川接五臺東 시내는 오대산 동쪽과 접하네.
世界雲峯隔 세상은 구름 낀 봉우리에 막혔고
仙源石瀨通 신선 세계는 돌 여울로 통하네.
浮生槐眞隱 덧없는 인생은 참다운 은자에게 부끄럽고
歸櫓雨聲中 빗소리 속에 배를 저어 돌아오네.³⁷⁾

위의 시는 이안눌(李安訥, 1571~1637)³⁸⁾의 「영춘동헌의 현판 시에

35) 尹東洙, 『敬庵先生遺稿』 「往永春 謁松坡書院 次板上韻」.

36) 윤동수(尹東洙) : 조선 후기의 학자. 자는 사달(士達) 또는 대원(大源), 호는 경암(敬庵). 선거(宣擧)의 증손자로 자교(自敎)의 아들이다.

37) 李安訥, 『東岳先生集』 「永春東軒次板上韻」.

38) 이안눌(李安訥) : 조선 중기 때의 문신. 본관 덕수(德水). 자 자민(子敏). 호

차운하다(永春東軒次板上韻)」이다. 영춘은 소백산맥의 북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으며, 주요 산으로는 태화산, 어래산, 형제봉, 신선봉, 삼태산 등이 있다. 이 중에 삼태산은 영춘현 서쪽 38리 제천현 경계에 있는 산으로 875.8m가 된다. 또한 오대산에서 발원한 남한강 물줄기가 영춘의 북동쪽인 오사리로 들어와 남서쪽인 사지원리에서 가곡면 향산리로 흘러가고 있다.

영춘은 이와 같은 산악지대에 있기에 구름낀 봉우리에 막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은자가 숨어 사는 세계인 듯 보인다. 이안눌은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眞隱'이라 하고 이들에게 부끄럽다고 하였다. 위의 시에서도 영춘동헌에 대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다음의 시를 살펴보자.

急峽蒼蒼薰遠天 험준한 협곡은 푸르러 먼 하늘에 무리지었는데
白雲紅樹路茫然 흰 구름과 단풍나무에 길이 아득하구나.
問君直上緣何術 그대에게 묻노니 곧바로 올라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爲學螺口一百旋 다슬기처럼 일백 번 선회하는 것을 배우면 되겠지.

戲唾孤鷲背上毛 장난삼아 한 마리 솔개 등위의 털을 희롱하니
寥天一握隱松壽 아득한 하늘 움켜잡고 솔바람에 숨어버리네
來時漫自愁昏黑 돌아올 때는 부질없이 어둔 밤을 근심하는데
落日還看十丈高 석양을 다시 보니 열 길 높이 남아있네.³⁹⁾

위의 두 편의 시는 박제가(朴齊家, 1750~1805)⁴⁰⁾의 「영춘의 노은치

동악(東岳). 시호 문혜(文惠). 형조참판·함경도관찰사 등을 지냈다. 주청부사로 명나라에서 정원군의 추존을 허락 받아 원종의 시호를 받아왔다.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39) 朴齊家, 『貞蕤閣二集』 「躡永春蘆隱峙」.

40) 박제가(朴齊家) : 조선 후기의 실학자. 자는 차수(次修)·재선(在先)·수기(修其), 호는 초정(楚亭)·정유(貞蕤)·위항도인(葦杭道人)이다. 1778년 사은사(謝恩使) 채제공(蔡濟恭)의 수행원으로 청나라에 가서 이조원(李調元)·반정균(潘庭筠) 등에게 새학문을 배웠으며 귀국하여 『북학의(北學

를 넘으며(躡永春蘆隱峙)」이다. 노은치(蘆隱峙)⁴¹⁾는 어상천면과 영춘면의 경계를 이루는 고개로 좌우로는 삼태산(三台山)과 옥계산(玉鷄山)이 위치하고 있다. 첫 번째 시에서, 노은치를 넘는 박제가는 곧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그도 그럴 것이 노은치는 해발 440M의 고개로 굽이굽이 산허리를 돌기 때문이다. 한없이 구불구불 이어진 고갯길에서 시인은 이 길을 돌아 나올 때쯤이면 캄캄한 밤중이 될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시의 전결구에 그런 시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한편, 박제가는 영춘과 관련된 한시를 5편 남기고 있다. 이 중에 「영춘잡절(永春雜絶)」의 “부질없이 다경을 가지고 품수하러 왔는데, 이 산에는 물이 없으니 차가 마땅치 않다네(枉把茶經來品水, 此山無水不宜茶)”라는 구절이 있다. 당시 실학자들이 육우의 『다경(茶經)』을 최고의 차 이론서로 숭상했으며 이와 함께 차 문화가 발전하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맛이 차맛을 결정하기 때문에 다도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의 하나가 품수(品水)이다. 산수가 수려하기 때문에 물맛도 좋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영춘의 물은 찻물로는 적당하지 않았던 듯하다.

이상에서 영춘의 서원, 동헌, 노은치를 소재로 한 한시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영춘의 옛 모습을 확인하기에는 여러 모로 아쉬움이 있기에 새로운 자료의 발굴을 기대해 본다.

Ⅲ. 영춘의 풍속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영춘에 대하여 “호수가 1백 95호요, 인구가

議)』를 저술하여 청나라 문물을 수용할 것을 강조한 북학파를 형성했다.

정조의 특명으로 규장각 검서관(檢書官)이 되어 많은 서적을 편찬했다.

41) 노은치는 『해동지도』와 『여지도서』 충청도 영춘현편에는 노은치(爐銀峙)로 표기되어 있다.

5백 82명이다. 군정은 시위군이 27명이고, 선군(船軍)이 15명이다. 본현의 토성(土姓)은 4이니, 조(趙)·윤(尹)·정(鄭)·진(秦)이요, 망성(亡姓)이 1이니, 석(石)이요, 속성(續姓)이 1이니, 이(李)이요, 어상천의 속성이 1이니, 정(鄭)이다. 땅이 메마르며, 기후가 많이 차다. 간전(墾田)이 1천 1백 98결이요, 논은 21결에 불과하다.”⁴²⁾라고 기재되어 있으니, 예나 지금이나 그곳에 사는 백성의 수가 적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그 지역이 궁벽하고 척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곳 영춘의 현감이 된다는 것은 ‘형리(荊籬)’ 즉 ‘유배’라는 말이 있다는 속언⁴³⁾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곳 영춘 지역의 풍속은 『여지도서』 충청도 영춘편에 ‘풍속(風俗) 순박(淳朴)’이라고 기재되어 있듯이, 순박하고 순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영춘을 노래한 한시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山行水涉過千重 산을 오르고 물 건너기를 몇 천 번 하였는데
沃野誰教箸筒中 좋은 땅을 누가 차지해 들어가 볼 것인가.
忠信如丘民壽□ 충성과 신심은 공자 같고 백성은 오래 살아
閭閻撲地畝南東 다닥다닥 붙은 마을 동남쪽에서 밭을 가네.⁴⁴⁾

위의 시는 신개(申槩, 1374~1446)⁴⁵⁾의 「영춘현에 쓰다(題永春縣)」이다. 일찍이 신개는 충청도관찰사를 역임한 바 있다. 영춘현의 풍속이 여실히 드러난 구절은 전결구이다. ‘忠信如丘’는 『논어』 공야장편(公冶

42) 『세종실록지리지』 “戶一百九十五，口五百八十二，軍丁侍衛軍二十七，船軍十五，本縣土姓四，趙尹鄭秦，亡姓一石，續姓一於李，於上川續姓一鄭。土瘠風氣多寒。墾田一千一百九十八結 水田止二十一結。”

43) 金允植, 『雲養集』 「過永春縣」 “四郡諺, 有永春縣監誇荊籬之語.”

44) 申槩, 『寅齋先生文集』 「題永春縣」.

45) 신개(申槩) : 조선 전기의 문신. 자 자격(子格). 호 인재(寅齋). 시호 문희(文僖). 공조참판으로 친추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와서 집현전 제학이 되었다. 세종 때 전라·황해·경상·경기도의 관찰사를 역임한 후, 형조참판·예문관대제학·대사헌·도총제 등을 거쳐 이조판서로서 북변에 침입이 잦은 야인을 토벌하도록 하였다.

長篇)에 “공자가 이르기를 ‘작은 고을이라도 반드시 구(丘 공자의 이름)처럼 충신(忠信)한 사람은 있으나 구처럼 학문을 좋아하지는 못한다[子曰十室之邑必有忠信如丘者焉, 不如丘之好學也]”라고 한 데서 가져다 쓴 말로, 이곳이 비록 작은 고을이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매우 충성스럽고 신심이 있다는 뜻으로 쓴 것이다. 또한 ‘民壽』라고 하였으니 백성들이 장수하는 것은 마음이 어질기 때문이다.

이는 『논어』 옹야(雍也)의 “인을 행하는 자는 산을 좋아하고 고요하며 오래 산다. [仁者樂山 仁者靜 仁者壽]”라는 말과 일치한다. 영춘 백성들이 장수한다는 표현은 유한준의 「永春」의 “사시에 봄이 늙지 않아, 사는 사람들이 혹 장수하네(四時春不老 居者或高年)”에서도 보인다. ‘다닥다닥 붙은 마을 사람들이 동남 발이랑에서 밭을 간다’는 절구는 영춘 백성들이 아무 근심걱정 없이 태평한 시절을 보내고 있다는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다음의 시를 살펴보기로 하자.

奇花異卉別留春 기이한 화초에 특별이 봄기운 남아
 櫟屋荊扉氣像淳 가족나무 집, 가시 사립문에 기상이 순수하네.
 漏洩幾時知作縣 얼마동안 고을을 맡아 다스리면서 비밀이 새어
 始焉應是避秦人 비로소 응당 진나라에서 피난 온 사람임을 알았네.⁴⁶⁾

위의 시는 이해(李滄, 1496~1550)⁴⁷⁾의 「영춘동헌에 차운하다(次永春東軒韻)」이다. 기구에서는 ‘봄이 길다’는 영춘(永春)의 지명을 가져다가 쓰고, 승구에서는 영춘 지방 백성들이 가족나무 집과 사립문에 가난하게 살지만 그 기상은 순수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곳 사람들의

46) 李滄, 『溫溪先生逸稿』 「次永春東軒韻」.

47) 이해(李滄) : 조선 중기의 문신. 이황(李滉)의 형이다. 자 경명(景明). 호 온계(溫溪). 시호 정민(貞敏). 경상도 진흥사로 하삼도 기근 해결에 공을 세웠다. 증중, 인중, 명중에 걸쳐 예조참판, 충청도관찰사, 한성부우윤 등을 지냈다. 권세에 아부하지 않았으며, 예서에 뛰어났다.

순수함은 마치 도연명의 도화원기에 나오는 '진나라 때의 난리를 피해 온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다. 영춘 지역의 궁벽함과 풍속의 순수함을 잘 드러내 준 표현이다.

朝發堤川暮永春 아침 제천을 출발하여 저녁 영춘에 도착하니
縣庭無訟吏民淳 현 뜰에는 소송이 없고 관리와 백성은 순박하네.
一盤坐斝山蔬軟 한 상 차려온 밥을 앉아 먹으니 산채가 연하여
分與三神洞裏人 삼신동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네.

一縣桃花萬樹春 온 고을의 수많은 나무에 봄철 복사꽃이 피었고
峒氓居處土風淳 산골에 거처하는 백성들 풍속은 순박하네.
扁舟棹入清溪口 작은 배로 노 저어 맑은 시내에 들어가니
更喜沙禽不避人 물가의 새가 사람을 피하지 않으니 더욱 좋네.⁴⁸⁾

위의 두 편의 시는 이안눌의 「영춘동현의 현판시에 차운하다(永春東軒次板上韻)」이다. 첫 번째 시를 보자. 아침에 제천에서 출발하여 저녁에 영춘에 닿았다고 한다. 제천-영춘 간이 40리가 되니 대략 하루길이다. 승구의 '縣庭無訟', '吏民淳'이 바로 영춘현의 풍속을 대변하는 표현이다. 영춘이 산악지대에 있으니 산채나물이 주반찬임은 불문가지일 터. 산채나물마저 순박한 이곳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다고 한 전결구는 이곳 인심이 후박함을 드러내고 있다. 시인은 이곳 영춘이 봉래(蓬萊)·영주(瀛洲)·방장(方丈) 등의 삼신산에 비견되는 곳이라 여겨 '삼신동(三神洞)'이라 하고 있다.

두 번째 시를 보자. 전결구의 '온 고을에 복사꽃 피고, 사는 백성들 풍속이 순박하다'는 표현은 언뜻 도연명의 '도화원기'를 연상하게 한다. 진나라 때의 난리를 피해 처자와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그윽하고 궁벽한 곳으로 들어와 속세와 단절된 세계에서 살고 있는 무릉도원의 일부

48) 李安訥, 『東岳先生集』 「永春東軒次板上韻」.

처럼 묘사되어 있다. 사람들이 순후하니 물가의 새마저도 낯선 사람을 피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此邑甚淳古 이 고을이 심히 순박하니
鴻口似太初 홍몽이 태초와 같네.
近山時友鹿 산을 가까이 하면 가끔 시슴을 벗하고
臨水祗觀魚 물을 대하면 다만 물고기를 구경하네.
吏趣鳴琴在 관리의 취미가 거문고 울리는데 있고
詩情對菊舒 시정은 국화 대할 때 펼쳐지네.
蕭然無訴牒 송사문서가 없어 조용할 때면
終日訟庭虛 온종일 송사하는 뜰이 텅비게 되네.⁴⁹⁾

위의 시는 임방(任□, 1640~1724)⁵⁰⁾의 「영춘현 관각에서 원님에게 보이다(永春官閣示主倅)」이다. 임방은 단양군수로 있을 때에 큰 흉년이 든 백성들에게 창고를 열어 구휼하였다고 한다.⁵¹⁾ 시인은 영춘 고을의 풍속이 매우 순박하며 태초와 같이 고요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다. 산수가 가까이에 있어서 시슴과 벗을 하고 물고기를 보면서 자연과 이웃하며 살고 있다. 또한 관리는 거문고 울리는 것이 취미이다.

여기서 ‘명금(鳴琴)’은, 공자의 제자 복자천(宓子賤)이 선보(單父)에 수령으로 있으면서 거문고를 타면서 백성을 잘 다스렸다는 고사에서 원용한 것이다. 작은 마을을 잘 다스렸다는 의미로 쓴 것이다. 결국에서 송사문서가 없어 송정(訟庭)이 비었다는 의미도 백성 간에 분쟁이 없는

49) 任□, 『水村集』 「永春官閣示主倅」.

50) 임방(任□) : 조선 후기 문신. 본관은 풍천, 자는 대중(大仲), 호는 수촌(水村)·우줄옹(愚拙翁)이다. 송시열과 송준길의 문인이다. 1689년 호조정랑 때 기사환국으로 송시열이 유배되고 인현왕후가 폐위되자 사직했다. 인현왕후 복위와 함께 의금부도사로 복직, 사옹원첨정 등을 지내고 1702년 알성문과에 급제, 장령이 되었다. 이어 대사성 등을 거쳐 공조판서가 되었다.

51) 任□, 『水村集』 “甲戌，歷數官，守丹陽郡，荐歲大侵，賜恤憐心，無一民捐瘠，貧族歸者如市，發廩餘贍之，亦無一人失所。”

평화로운 마을임을 드러낸 것이다.

IV. 맺 는 말

지금까지 시문(詩文)에 보이는 영춘의 승경(勝景)과 풍속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예로부터 산수가 수려하기로 이름난 영춘은 수많은 시인묵객들이 그 자취를 남겼다. 이곳 영춘의 현감을 지낸 권두인, 남유용 등을 비롯하여 신개, 이안눌, 신민일, 이춘원, 임방, 강재항, 박제가, 유한준, 김정희, 김윤식 등 20여명의 시인들의 작품이 전하고 있다. 영춘 관련 한시는 약 40여 편이 있으며, 영춘의 남굴, 북벽, 영춘동헌, 송파서원 등을 소재로 하여 창작된 것이다. 또한, 영춘의 대표적인 볼거리인 남굴과 북벽을 유람하고 나서 쓴 권두인의 「영춘북벽기(永春北壁記)」, 서명웅의 「유영춘기(遊永春記)」 등 4편의 유기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상에서 논의한 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춘의 승경을 읊은 한시는 거의 대부분 남굴과 북벽을 노래하고 있다. 남굴은 영춘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굴로서 ‘정산굴’ 혹은 ‘석굴’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시문에서는 남굴 내부의 모습과 기암괴석 등의 기이함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특히 군자가 동굴과 같이 위험한 곳에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소인의 위험한 행동이라고 경계하는 구절을 통해 동굴에 대한 선인들의 의식을 엿볼 수 있다. 북벽을 유람하고 쓴 유기 가운데는 권두인의 「영춘북벽기」가 가장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북벽의 풍경과 뱃놀이를 하는 풍류와 흥취가 유려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외에도 송파서원, 영춘동헌을 읊은 한시가 있으나 영춘의 옛 모습을 확인하기에는 여러 모로 아쉬움이 있었다.

둘째, 영춘을 읊은 한시에서는 시인들이 영춘의 풍속을 매우 소박하고 순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을은 마치 도연명의

도화원기에 나오는 궁벽한 곳처럼 세속과 단절된 세계에서 살고 있는 무릉도원으로 그리고 있으며, 현(縣)의 뜰에는 송사가 없어 조용하고 그곳에 사는 백성들은 충성스럽고 신심이 있다고 묘사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건대, 영춘 지역은 지역적으로 궁벽하지만 산수가 아름다운 곳이 많고 풍속이 순박하여 살기 좋은 곳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춘의 옛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기를 기대해 본다.

[논문접수:2011.11.18, 심사시작:2012.1.16, 심사완료:2012.1.19]

주제어 : 영춘, 영춘의 승경, 영춘의 풍속, 남굴, 북벽

<참 고 문 헌>

- 權斗經, 『蒼雪齋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169집)
權斗寅, 『荷塘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151집)
金允植, 『雲養集』 (한국문집총간 328집)
南有容, 『雷淵集』 (한국문집총간 217~218집)
朴齊家, 『貞蕤閣二集』 (한국문집총간 261집)
徐命膺, 『保晚齋集』 (한국문집총간 233집)
徐文澤, 『金剛山·四郡遊山記』
成海應, 『研經齋全集』 (한국문집총간 273집)
宋秉璿, 『淵齋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329~330집)
申槩, 『寅齋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8집)
沈象奎, 『斗室存稿』 (한국문집총간 290집)
兪漢雋, 『自著』 (한국문집총간 249집)
尹東洙, 『敬庵先生遺稿』 (한국문집총간 307집)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李德壽, 『西堂私載』 (한국문집총간 186집)
李安訥, 『東岳先生集』 (한국문집총간 78집)
李瀛, 『溫溪先生逸稿』 (한국문집총간 27집)
任□, 『水村集』 (한국문집총간 149집)
『世宗實錄地理志』
『湖西勝覽』
단양군, 『단양군지』, 2005.
丹陽文化院, 『丹陽漢詩選』, 문예사, 2008.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8.
박종익, 「기행문학 <金剛山·四郡遊山記>의 내용분석」, 『어문연구』
64, 2010.
박종익, 『금강산·사군유산기』, 민속원, 2001.
이창식, 『단양팔경 가는 길』, 푸른사상사, 2002.